

## 머리글

오늘날 세속적인 학문과 과학기술은 화려한 외양과는 달리 인간 본질에 대한 제반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혼동 속으로 인간을 몰아가고 있다. 이들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결과적으로 기독교적 가치관—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어 인간으로 하여금 물질주의적·인본주의적·상대주의적 사상에 오염되도록 함으로써 오늘날의 사상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 제반 문제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세속적 학문과 그 사상들은 기독교적 사상 및 문화의 보급과 확장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정립하여 그에 따른 학문과 형이상학적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제반 학문의 연구가 진정으로 올바른 방향—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향하는—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금번 「통합연구」에서는 “테크놀로지와 생태학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이란 주제를 다루었다. 과학과 기술의 괄목할만한 성장에 따라 현대 세계에 있어서 그 어떠한 인간적 및 종교적인 것보다도 과학을 중요시 여기는 풍조가 팽배하고 있다. 그러나 1978년 인도의 푸나에서 개최된 세계질서모델계획 제 14차 회의에서 과학과 기술이 권력과 통계의 도구로 이용되어 불평등, 착취, 소외, 그리고 무관심을 빚어내고 있음을 지적했듯이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타락된 인간의 속성 안에서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단지 힘일 뿐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오용에 따라 생화학 무기, 농약, 산업 폐수에 의한 생태계 파괴 등은 우리 인간의 생존에 큰 위협을 주고 있으며, 특히 유전자 조작 등을 통한 생명공학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 떠나 있는 현대의 문화적인 조류와 윤리의식 가운데서 어떠한 돌발적인 결과를 유발시킬

것인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성경적 조망을 통해 기독교적 대안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경은 과학기술적 진보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의 일부로 생각한다. 자연을 연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과학을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인간의 활동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은 과학기술의 타락, 이데올로기화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부정하고, 창조질서를 파괴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리스도인은 이에 대적하여 창조질서를 회복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의 이름밖에 없음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그 능력의 이름을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자기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낮아져야 할 필요성이 역사의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인 것이다. 그렇기에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각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부끄럼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한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합당한지 늘 생각하고 기도하게 된다.

1991. 10.

발행인 원동연